광주·전남경찰 범법행위로 '얼룩'

공공질서 지켜야 할 경찰 지갑 훔치고 부하 성추행까지…기강 해이 '도마'

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이 공공질서 유지 책무는 커녕, 도리어 범법행위를 저질러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나주경찰은 골프장 탈의실 사물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광주 서부서 모 지구대 A경사를 입건했다.

A경사는 지난 13일 낮 12시 30분께 나주시 한 골프장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수표 700만 원이 든 지갑 등 총 8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경사는 다른 이용객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훔쳐 본 사물함 잠금 비밀번호를 누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곧장 달아난 A경사는 뒤늦게 골프장 측에 유실물을 습득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으나, 경찰 추궁에 못 이겨 범행을 실토했다.

경찰은 A경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벌여 징계 절차에 나선다.

광주에서 절도 행각을 저지른 현직 경찰관은 최근 3년 사이 3명이다. 3명 모두 공교롭게도 서부경찰서 소속이자, 치안 최일선에 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들이었다.

전직 경찰관 B씨는 서부서 모 파출소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2월 18일 새벽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 유리 소재 외벽을 공구로 깨고 침입, 254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쳤다.

B씨는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8억 대 상당의 도박을 하다 발생한 부채를 갚고자, 차량 번호판을 미리 가리는 등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절도·건조물 침입·상습도박·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 앞서 B씨는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부서 모 지구대 경위였던 C씨도 올해 8월 21일 퇴근길 관할지 내 한 공동주택 거치대에 놓인 자전거(40만 원 상당)를 훔쳐 최근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해임 징계에 따라 공직 역시 떠났다.

전남에선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산 일선서 소속 경위가 재판에 넘겨졌다.

D경위는 지난 7월 말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각종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D경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D경위는 우선 직위해제됐으며, 성비위 처리 지침에 따라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에선 내부 갑질,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 수당 무더기 부당 수령 등 각종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이밖에 관리 부실에 따른 피의자 도주 사건이 잇따르며 문란한 기강도 뭇매를 맞았다. 파출소 피습 상황에서 대피에 급급했던 여수 경찰관들도 도마에 올랐다.

이 같은 경찰의 잇단 비위·일탈에 지역사회 비판 여론은 들끓었다. 경찰 내에서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수치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온다', '참담하고 서글프다' 등 반응이 나오며 술렁였다. /천기만 기자

광주형일자리 미래전략은…토론회 성황

"업종 다변화, 다양한 전문자원 조직화 필요"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대전환 방향 설정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시와 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 공동주최로 지난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학계와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혁신운동 측면에서 광주형일자리 개념의 재정립과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임금 해결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작동을 역설했다. 또 "광주형일자리 대전환을 위해 광주가 구축한 상생의 구성체가 미래 모델이 되도록 신뢰와 타협의 정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일자리 정책 수단들을 결합해 지역 주도의 일자리 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교육, 복지 정책을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광주형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선 제조업 중심에서 일자리 전반으로 업종 다변화를 강조했고, 파편적 일자리 사업을 공통화하고 지역 인재 지원을 위해 상생일자리재단이 다양한 전문자원을 조직화해 모델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광주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상생일자리재단의 인프라 확보와 연구·실태조사 결과의 사업화, 광주시와 재단, 관련 단체 거버넌스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일상 기자

전남개발공사, 부패방지 시책평가 2년 연속 '최우수'

2022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실시한 2022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공직유관단체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 확산 결과를 3개 부문 13개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전남개발공사는 부패예방, 청렴관리, 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노력했다.

청렴패트롤 제도, 갑질·청렴시민감사관, 청렴해피콜 운영 등 부패 취약분야 개선활동에 주력했다.

특히 부패방지경영 국제표준 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해 경영 전반에 부패리스크 관리를 위한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해 도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이 되도록 반부패·청렴 가치 확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광주시교육청 제2회 빛고을 학교자치 포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학생·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을학교자치, 함께 꾸는 꿈'을 주제로 '제2회 빛고을 학교자치 포럼'을 개최했다.

1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교육 3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각자가 실천해온 학교자치 경험을 나누고 모두가 꿈꾸는 학교자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광주동산초등학교 김은희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모두가 참여하는 원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직 교사들이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소방, 제9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개최

황기철 소방교 최우수상…내년 전국대회에 광주 대표 출전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열린 '제9회 광주광역시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황기철 소방교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과 5개 소방서를 대표한 소방안전강사 6명이 참가해 자유주제로 소방안전교육 강의 실력을 겨뤘다.

황기철 소방교는 '더운 차 안에 나 혼자?! 놀라요! 빨간 코와 빵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교수 학습전략과 강의 전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 소방교는 2023년 개최되는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 /조일상 기자

'3만 군민 안전책임' 진도소방서 개청

고품질 소방안전 서비스로 주민 안전 확보 다짐

3만 진도군민의 안전을 지켜줄 진도소방서가 힘찬 출발을 알렸다.

진도에는 그동안 전담 소방서가 없어 해남소방서 소속 진도119안전센터에서 재난대응과 소방행정을 담당했었다.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진도문화예술특구에서 진도소방서 개청식을 하고 고품질 소방안전 서비스로 주민 안전을 책임질 것을 다짐했다.

개청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재갑 국회의원,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김희수 진도군수, 이동현 전남도의원, 장영우 진도군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에 20번째로 개청한 진도소방서는 2021년 7월 착공해 총사업비 70억여 원을 들여 7385㎡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조직을 3과, 2안전센터, 1구조대, 4지역대로 편성한 가운데 소방인력 147명, 소방차량 29대를 갖추고 진도의용소방대와 함께 진도의 안전을 책임진다. /진도=박재영 기자

전남도립대, 최고등급 '유효기간 5년' 획득

전남도립대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3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해 최고 등급인 유효기간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요건을 충실히 갖추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도립대는 3주기 인증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본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을 위해선 대학 이념·경영, 교육과정·교수·학습, 교원·직원, 학생지원·시설, 대학 성과·사회적 책무 등 주요 정량지표가 포함된 5개 영역을 모두 충족하고, 하위 30개 평가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박병호 장은 "평가인증 결과는 도립대가 추구하는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취업이 잘 되는 인재양성 선도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